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룿기

중요한 선택 앞에서 (룿기 1:15-18)

Facing an Important Choice (Ruth 1:15-18)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과 상관 없이 주어지는 환경도 있지만 그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룿의 삶의 선택을 보며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Life is a series of endless choices. Naturally, when there is a situation imposed on us and not related to our choice, we would much rather have options to choose from. On which basis do you make choices in your life? As we observe Naomi, Orpah, and Ruth make life choices in this text, we must learn an important lesson from the Bible.

1. 나오미의 선택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을 찾아가던 나오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크게 실패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곧 바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이것 자체는 매우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신앙이 견고하고 확실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다시 데리고 갔어야 했습니다.

1. Naomi's choice

Naomi's family had left the land of the covenant for Moab, and had found much failure and frustration there. Then, upon hearing that the Lord had come to the aid of His people, Naomi was determined to return back to Bethlehem in Judah.

그런데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따라오지 말고 좋은 남편을 얻어 잘 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옳은 선택인 것 같으나 성경적이거나 영적인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처럼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그녀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We can say that this was a decision of faith. But, Naomi did not seem to be definite in her faith. If she clearly believed in the Almighty God, and the eternal love of God, no matter how difficult it was, she would have taken her two daughters-in-law back to Bethlehem with her.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언급하며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Along the way, Naomi asked her two daughters-in-law not to follow her, but to find rest in the home of another husband. This seemed to be the logical cho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but this could never be a biblical or spiritual choice. We can see that she makes her choice according to human instincts, not only this time, but also at other times when she is able to see a visible advantage.

However, it was fortunate that Naomi always mentioned the name of the Lord, and preached the God in whom she believed. This was why her two daughters-in-law loved and respected her.

2. 룿의 선택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의 제안을 따라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룿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룿은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리라! 나도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 나도 그분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리라! 하나님만을 나의 생명 삼으리라!” 룿의 결단은 결국 그 가문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했습니다.

2. Ruth's choice

As a result, the first daughter-in-law, Orpah, returned back to Moab according to her mother-in-law's proposal. But the second, Ruth, continued along with her to the very end. Through her mother-in-law, Ruth was able to see the world of faith in which people believed in the true God. Therefore she decided, "I will serve the God of my mother-in-law as my God! I will be a part of His people! I will live in the midst of His grace and righteousness! I will submit my life to the only true God!" Ultimately, Ruth's resolution opened the way for Jesus to be born according to her clan.

룿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기로 결단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룿처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좇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Ruth gave up the only happiness that she could enjoy on earth in order to be a part of God's people, and to keep her faith. Faith is resolution. When we give up the condition of happiness that we can enjoy in this world and follow God, this is simply fait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단의 연단, 훈련의 훈련을 더 하십니다.

The Bible wants clarity in us. God never gives up on any of us, and continues to test us with discipline after discipline, and with training after training, until our faith becomes absolutely clear.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전폭적이고 온전하게 신앙을 붙들며 매 순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By giving up the human and worldly way of thinking, and by holding on to a complete faith,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ill make right choices at every momen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설날 연휴를 성경통독사경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2월2일(수) 오후1시~오후5시 / 2월3일(목) 오전8시~오후5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범위 : 롯기~옴기

설날 연휴기간에 우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인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일(수) 오후1시 개회예배를 드리고 구약성경 롯기 1장부터 3일(목) 오후5시 옴기 42장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며 우리교회 교역자들이 강

사로 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약해지기 쉬운 명절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 시간을바치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한다. 식비및 간식비는 1만원이고, 사무국에서 접수 받는다.

은혜롭게 진행 중인 겨울 수련회

금주는 중등부 · 대학부 · 디아스포라 · 영어예배부

지난 주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2011 교회학교 겨울수련회가 시작 되었다. 이번 주는 중등부, 대학부, 디아스포라, 영어예배부가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중등부(부장 이동만 집사)는 1월24일(월)~26일(수), 아가페타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박노철 목사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한 박노철 목사

는 청년"을 주제로 박노철목사와 유문건 목사가 강사로 선다. 탈북하여 우리교회에 등록한 디아스포라부(부장 탁경준 집사)는 28일(금)~29일(토), 아가페타운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박노철 목사, 김성호 목사, 박광일 목사가 강사로 선다. 영어예배부 역시 28일(금)~29일(토)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조슈아 조 목사가 강사로 선다.

비전 2020후원자명단

권소희 김관규(윤혜련) 김은경 김권집 김주현 김형상(최금숙) 권희만 김광태(최종희) 강진환(양정실) 김복녀 김영준 고석규 김정희 김관홍 공유진 김형배 김준옥 김태호 김민선 김민주 강애자 강희자 강승웅(서경애) 김지영(김선혜) 강요셉 강찬양 김광옥(서영희) 김준목 김민혜 김선태(김옥순) 김장섭(최춘숙) 김희진 김경숙 김은태 김정곤 김수정 김광민 박민숙 김용환 노제현 노영환(홍은경) 나기태 나미용 노희균 노희수 류장렬 노정숙 노문환 노병희(방덕자) 민정미 류종기 박해옥 박훈 박두호 박정선 백영자 박종민 박영실 방계운(박현) 박정섭 백도환 박정수(김경옥) 박정자 박진희4배재순(임분도) 박병옥 조혜영 박인규 박기남(강영순) 박종권(김희경) 방효철 박화실(이은지) 박정일 신삼철 송행희 송인권 손명근 송재현(선순례) 서영세 신용식 손경화 임종태 이준호3(이은희) 임낙식 유승준 윤석원(현승희) 이완형 이건희 이동만 양은희 이영선(박순봉) 이상호2 오민세(임경희) 이영조 이영기(이영숙) 이갑연 이민희(신순자) 임광호(김정미) 육순자 이광열(엄금순) 이기욱(이기택) 윤찬오 오종철(김연화) 이택빈 임상현 이경구 임병우(임혜림) 임흥수 이부자 이훈 원용범 이선자 안홍희(전화진) 이강진(이신재) 이우진 윤갑숙 이관모 유일상(윤숙희) 은기장(김경숙) 이지은 이홍숙 오정수 유건호 양춘경(이인숙) 유윤지 이남성(최영란) 이준수 이복규 이현수 이명구(문옥일) 이윤재 임광우(최미희) 이영욱(최금봉) 오영숙 오치열 이관규 이민화 정복순 정기자 장윤기(노애리) 조순엽 주동재 장성자(이상우) 전용순 조정옥 장명순 장인원 장택 주경자 전수자 정승자 정희순 정동학(김복순) 조희 정우정 정연택 전하미 진승근(이혜선) 조정식 최미아 최형열 최광성 차도훈(남태영) 최규초 최승환 홍성주(여현진) 홍광숙 하인선(남태순) 황병석 함정희 허숙 황재식 황선옥 탁경준 표현희 제2스데반회 제1권사회 이삭선교회 베드로선교회 예스더선교회 루디아전도회 도르가전도회 (다음 주 계속)

EM 2011 Winter Retreat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Rev. Joshua Cho

Our vision, as an English Ministry, is to share the love of Christ to foreigners and English-speakers in Korea. In order to share that love, we need to first experience that love. Therefore, our theme for this year's retreat is the experiencing the amazing love of God that is



need to remember that this is reflection of God's relationship with us. All of us run away from God. We pretend to worship God, but secretly in our heart, we run after the idols of money, comfort, and pleasure. Each time God forgives us, we seem to return to the same sins over and over again. How could God love sinful people like us?

reflected in the book of Hosea. The prophet Hosea did not only have a message for Israel, but manifested that message visibly through his marriage to the prostitute, Gomer. Gomer was unfaithful to Hosea, repeatedly running away and selling herself into prostitution. Unbelievably, Hosea searched after her each time, and in order to redeem his wife and bring her back home again. This was a picture of God's unfailing love for Israel. Like Gomer, Israel continued to be unfaithful, seeking after the gods of other nations. But, God continued to redeem Israel, sending His prophets, disciplining her for her sins, and drawing her back through repentance.

Yet, we can have hope, because of the love of Christ. Ephesians 5:25-26 says,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to make her holy, cleansing her by the washing with water through the word." Christ is the greater Hosea, who not only purchased us from our slavery to sin, but died on the cross to pay the price. That was something not even the prophet Hosea was willing to do. And by his blood, Christ continues to sanctify us, working in our lives until the Final Day when the church will be pure and dressed in white, ready to many our Savior.

This is the love of God. My prayer is that we will all experience this love afresh, and then share this love with other foreigners who are also in need of the greater Hosea, Jesus Christ.

The thought that a prophet was married to a prostitute may seem horrifying to us, but we

겨울수련회 초대인 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디아스포라부

탁경준 집사(디아스포라부 부장)

어느덧 서울교회에 디아스포라부 공동체가 세워진지 여덟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를 통해 복음을 접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디아스포라부는 다시 한번 영적 성장과 아울러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부 주신 영적인 사명과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 디아스포라부는 1월 28일(금) ~ 29일(토)까지 '다음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디아스포라부'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는 박노철 목사님의 주옥같은 말씀과 북한선교 전문사역자인 김성호 목사님의 특강, 그리고 박광일 지도목사님의 말씀과 기도회 인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부의 겨울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될 기도하고 있으며 서울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운 원로목사 한국기독교 학술원장 취임사

하나님께만 영광! Soli Deo Gloria!

지난 21일(금), 이종운 원로목사의 (재)한국기독교 학술원 2대 원장 취임 감사예배가 있었다. 다음은 이종운 학술원장의 취임사이다. (편집부)



불탄 포도넝쿨 같고 타다 남은 부짓쟁이 같은 버림받은 종에게 하나님은 과분한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충성스런 종으로 여기시어 직분을 맡겨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이흥순 이사장님과 명예 원장이신 이종성박사님과 이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거창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기보다 맡은 자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드림으로 취임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소원하시고 한국기독교학술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안일주의나 타산주의 또는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비전과 이상이 있어야 하고 창의적 지혜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 결단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종성 명예원장님은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일, 또 하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뽑아 세우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거기에 수반되는 지혜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과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저도 이종

성 박사님을 본받아 한국기독교학술원이 성경적 바른 신학을 정립하여 죽어가는 서구신학과 채피지도 못한 채 시들어 버리고 있는 제3세계신학을 살리기 위한 이 시대의 남은 그릇이처럼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므로 세계의 신학자들의 버림목이 되는 바른신학 운동을 시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모퉁이들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건축물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돌, 두 개의 담벽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모퉁이돌, 그러면서도 좀처럼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은밀한 희생을 하는 모퉁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이흥순 이사장님은 가정, 일터,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 한국교회의 화합과 연결을 창조해 내시는 분, 그러면서도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는 모퉁이돌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저도 비록 버려지갈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한국기독교학

술원이 한국 신학계의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돌,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한국 신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자임하는 모퉁이돌, 그러면서도 국가와 사회를 바르게 계도하기 위해 희생하면서 섬기는 도리를 감당하는 모퉁이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열납하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일이 진행되었다면 주님이 아실 바 아닐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는 성공도 없고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르시는 성공은 축복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물음과 허락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허락없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일까지도 그리고 바울은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며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묻고 허락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속적 방법으로 일을 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아실 바 아닐 터이니 무엇을 했느냐 보다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며 처신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의 2대원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종이 될 것이며 모퉁이돌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명령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취임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Soli Deo Gloria!



성경 통독 사경회를 기다리며

달고 오묘한 말씀

심화속 권사 (5교구)

우리 가정이 1988년 강남으로 이사오게 되면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 새롭게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친한 고향 친구의 권유로 충현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곳에서 이종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이종운 목사님을 만나 획기적인 신앙의 정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것처럼 기쁨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락방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다락방장까지 맡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지 못하다가 점차 달고 오묘한 말씀의 꿀맛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성경통독사경회를 처음 실시할 때 기쁨으로 참석하였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놀라운 속도로 읽어어나가는 방법이 무척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세상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데 이때 성경을 읽으며 말씀안에서 보내는 명절 통독사경회에 즐겨 참석합니다.

올해도 설날 연휴에 있을 성경통독사경회가 기다려집니다. 성경을 읽으며 보내는 명절이 얼마나 보람되고 은혜로운지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번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야성이 살아나는 금요기도회

새해들어 금요기도회의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기도회 30분전부터 시작 되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에 박노철 목사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실어준다. 서울교회의 영적 야성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살아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올리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선교지 소식 - 방글라데시

슈보 노보 보르쇼

해피 뉴 이어~
(슈보 노보 보르쇼)

2011년이란 숫자가 익숙하지 않아 아직도 2010을 쓰게 되는 1월3일입니다. 새해에 기도 해주신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 제목을 올립니다.

28일 발표한 하이스쿨 진급 시험인 국가고시에서 저희 호스텔 아이들 5명 모두가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거기에 다섯명 모두 1등급 점수를 받아 하나님과 기도



6학년이 입학한 학생들 왼쪽부터 이문,로비올,아노와르,마하부블,니샤

졌으면 마음이 어려웠을텐데 모두 합격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공부를 시킨것이 아닌가 미안하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국가시험을 본다... 한 명이라도 떨어

했습니다. 올해부터 한 학년 진급한 6학년 5명 아이들이 일반학교(모슬렐)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슬렐 종교교육도 받아야하는데 호스텔(학사)에서 배우고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꾀박에도 잘 이기고,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돕는 분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기도와 사랑의 동역자님, 항상 기도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사(소망)의 집에서 조남혜 선교사와 소망의 아이들이 올립니다.

겨울수련회 초대인글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 다모여라!

최희미 성도 (대학부 회장)

날씨가 쌀쌀해 움츠러드는 요즘, 여러 친구들과 다함께 어울려,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아는 사람들도 없고, 낯설다고 생각하신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대학부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2011 대학부 겨울수련회!! 젊음과 열정으로 뭉친 대학부가 아가페타운에서 1월27일부터 29일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갖습니다. 깊숙이 파고들면도 재치 넘치는 박노철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유문건 목사님의 말씀. 뜨거운 찬양과 기도회. 잘 모르는 친구들과도 하나 될 수 있는 포레모임.... 다함께 뭉



굴며, 대학부만의 젊음을 발산하고, 주님 안에서 에너지를 얻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수련회가 자신의 인생의 turning point였다고, 그냥 알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시간이라 말합니다.

이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학부원!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세상가운데로 나아갈 청년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눈 덮인 아가페타운에서 예수님과 발도장을 쿡! 찌고 다시 돌아올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학부 선생님들과 임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많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가는 청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최유현 성도의 찬양으로 드린다. 최유현 성도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음악원과 크레페이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귀국후 충남대, 중앙대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가브리엘찬양대와 시온찬양대 솔로리스트로 봉사하고 있다. 오늘은 '사랑이 오셨네(J.Paul Williams곡)' 외 두곡을 김에스터선생의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동정

- 취임: 4교구 탁경준 집사 2011년도 한국기독교실업인회 (CBMC) 한사랑지회 회장
- 이사: 7교구 김진환 집사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63 한강동부아파트 101동 702호

- 주간식당 봉사: 제2권사회(1.23) 빌립선교회(1.30)
- 금주의 식사·과일 제공: 김재진 목사 김수경 사모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2011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금주는 중등부 · 대학부 · 디아스포라부 · 영어예배부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0(주)~22(화)	서울교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2.20(주)~22(화)	서울교회	우리가 다음세대 일꾼이에요	박진아 목사
유년부	2.20(주)~22(화)	서울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김안성 목사
초등부	2.20(주)~22(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요	서명철 목사
중등부	1.24(월)~26(수)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미래	박노철 목사 / 박종민 목사
사랑부	2.13(주일)	서울교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문정훈 목사
대학부	1.27(목)~29(토)	아가페타운	주님과 함께 가는 청년	박노철 목사 / 유문건 목사
청년1부	2.28(월)~3.1(화)	아가페타운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박노철 목사 / 장석남 목사 / 구희숙 목사
청년2부	2.25(금)~26(토)	아가페타운	새로운 기둥으로 거듭나자	박노철 목사 / 황광 목사
디아스포라	1.28(금)~29(토)	아가페타운	다음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디아스포라	박노철 목사 / 김성호 목사 / 박광일 목사
에바다	2.26(토)	서울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박노철 목사 /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2(토)	아가페타운	성숙한 가정을 위한 신혼가정의 과제	박노철 목사 /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1.28(금)~29(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사랑	조슈아 조 목사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부흥되게 하소서.
2.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중등부, 대학부, 디아스포라부, 영어예배부 겨울수련회 되게 하소서.
3. 우리의 민족적 회개를 받아 주시고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소멸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